

주관적 안녕 척도: 공동생활 및 활동과의 연관¹⁾

김완석 · 김영진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공동생활 및 활동이 주는 주관적 만족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의 주관적 안녕 연구에서 사용된 1)삶에 대한 만족 척도(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 1985)와 2)삶의 질 일반 검사(조명환, 1993)를 선택하였고, 정서 상태를 평정하는 3)기분평정 척도(이흥철, 1993)와 개인의 성격 특성을 나타내는 4)외향성-내향성 척도(이현수, 1985), 5)삶의 지향성 척도(Scheier와 Carver, 1985)를 선택하였다. 아울러 공동 생활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6)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Triandis, 1995)와 7)공동체 의식 척도(Davidson과 Cotter, 1986)도 포함시켰으며, 8)26개의 생활 영역에서의 만족도를 묻는 문항도 포함시켜 하나의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이를 323명에게 실시하여 각 하위 척도 간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관적 안녕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는 삶에 대한 만족 척도가 가장 신뢰도가 높으며, 여러 다른 측정들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어서 가장 포괄적인 주관적 안녕감 척도로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분평정 척도의 하위 척도인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척도는 일반적인 주관적 안녕감 척도를 대체 혹은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 요인인 외향성-내향성은 기존 연구 결과와는 달리 주관적 만족도에는 독자적인 영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으나, 낙관-비관주의는 독자적인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영역별 만족도는 개인, 가족, 사회, 환경의 네 영역 중에서 개인영역 만족도가 주관적 안녕감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개인이 지각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은 대부분 개인적인 수준의 영역들에 대한 만족과 높은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의식과 집단-개인주의는 주관적 안녕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동 생활과 활동이 주는 주관적 만족감을 측정하기 위해 어떻게 주관적 안녕 척도를 구성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적인 성장이나 부의 증가가 실제로 국민들의 삶에 반영되고 있는가를 반성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래서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여러 실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러한 경제적, 행정적 조치나 시도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필수적인 작업의 하나는 삶의 질에 대한 평가 혹은 판단이다. 사회 성

1) 이 논문은 1995년도 교육부 인문·사회과학분야 중점 영역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원들이 현재 자신들의 삶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 특정한 조치의 결과로 삶의 질이 얼마나 증가되었다고 느끼고 있는가? 삶의 질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요인이 이러한 판단을 주도하는가 등의 여러 평가와 관련된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은 용두사미가 되기 십상이다. 거창한 구호로 시작된 프로그램이, 실제 효과로 나타내고 있는가를 확인, 평가하여 이에 따른 수정을 하지 않고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간과되고 있는 요소가 사람들의 주관적인 기준이다. 예를 들어 정부 기관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리라고 시도한 여러 조치들이 실제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하거나 오히려 불만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몇가지 경제적, 환경적 요건으로 나타나는 것이 삶의 질의 지표가 아니며, 이 요건에 대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느낌과 경험이 궁극적인 삶의 질의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과정은 단순하지 않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몇몇 경제적, 환경적 지표로 사회 성원의 삶의 질 평가가 환원 될 수도 없다. 즉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삶의 질은 외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나 물리적 풍요의 정도만으로는 예측될 수 없기 때문이다(예, 신도철, 1981).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을 주관적 지표에 의해서 분석하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삶의 질이 곧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SWB)”임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주관적 안녕을 조사하기 위한 척도 개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Diener와 동료(Diener, 1994; Diener & Diener, 1995)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가 대표적인 예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조명한, 김정오, 및 권석만(1995)에 의

해 주관적 삶의 질과 여러 사회적 변인을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관적 안녕으로서의 삶의 질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주관적 안녕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떤 하위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주관적 안녕 판단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관한 통합된 견해나 모형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실제의 주관적 안녕을 묻는 문항이나 척도들이 너무 다양한 형편이다(Diener, 1984). 각 연구자마다 자신의 목적에 적합한 문항이나 방법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기에 연구간의 직접적인 비교나 통합이 어려운 형편이다. 물론 주관적인 안녕으로서의 삶의 질은 복잡한 구성요소가 복잡하게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기에 현재의 연구 수준에서는 이론적인 통합이나 표준적인 척도 개발이 어렵지만 앞으로의 목표임에는 틀림없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주관적인 안녕으로서의 삶의 질”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간단히 개관하겠다. 주관적 안녕복지의 구성 요소 자체에 대한 이론적인 관심보다는, 나중에 언급할, 공동생활과 활동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접근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다. 두 번째로 공동생활 및 활동이 주는 주관적 안녕에 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개관하겠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공동 생활 활동이 사람들의 주관적 안녕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혹은 주관적 만족을 주는 공동 활동과 생활은 어떠한 것인가를 찾는 데 있다. 그리고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척도를 구성해야 하는가가 본 연구의 초점이다. 첫째, 둘째 논의에 바탕을 두고 여러 질문 문항으로 주관적 안녕을 측정하는 잠정적인 척도를 구성하고 실제 조사를 통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동생활과 활동이 주는 주관적 안녕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구성하는데 고려할 점을 정리하겠다.

주관적 안녕에 관한 이론적 모형

‘주관적 안녕,’ ‘행복감,’ ‘삶에 대한 만족’ 및 ‘긍정적 감정의 경험’ 등에 관한 많은 이론적, 경험적 논의들이 있다. 여러 연구들이 서로 다른 개념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측정 방법을 상이한 이론적 바탕에서 개발해 왔다. 이러한 여러 연구들에 대한 논의는 이미 Diener(1984)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본 개관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아울러 주관적 안녕을 측정하는 특정한 척도와 관련된 세부적인 문제도 본 개관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단지 연구의 방향을 찾기 위한 전체적인 이론적 틀이나 모형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연구들을 개관하겠다. 척도와 관련된 문제는 결과 부분에서 언급하겠다.

하향-상향 이론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여지는 주관적 안녕에 관한 이론이 상향-하향 이론(bottom-up, top-down theories)이다. 사람들의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혹은 행복은, 상향 이론에 따르면, 순간순간의 쾌와 고통의 합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행복한 삶이란 행복감의 누적으로, 즉 경험이나 상태의 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반면 하향 이론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총체적인 경향성, 성향이 있는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이 개인으로 하여금 세상과 상호작용하는데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즉 성격 요인과 같은 총체적 특성이 여러 사건에 대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특정한 사건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이 행복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두 입장 모두를 지지하는 직관적, 경험적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Andrews와 Withey(1974)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예언하는데, 여러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예언변수로 중요하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다. 여러 영역에 대한 만족이 전체적인 삶에 대한 만족의 원

인이라기 보다는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향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Costa와 McCrae(1980)도 외향성(extroversion)과 신경증적(neuroticism) 특성이 주관적 안녕복지의 변량을 신뢰롭게 설명해 줌을 보고하여 하향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개인의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사건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주관적인 안녕복지 판단에 영향을 끼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기에 상향의 접근도 타당성을 갖는다. 구체적인 생활 사건이 주관적 안녕복지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으나, Headey와 Wearing(1989)는 구체적인 생활 사건(예, 새로운 친구가 많다)이 성격 요인보다 주관적 안녕복지에 더 큰 효과를 끼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해 상향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이 두 요인을 포괄하는 경험적인 연구가 제기되고 있다. Brief, Butcher, George, 및 Link(1993)는 주관적 안녕에 관한 상향, 하향 이론을 통합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건강 상태로 측정한 객관적인 삶의 조건(상향)과 부정적 정서성으로 조작화한 성격 변인(하향)이 모두, 삶의 조건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끼치고 간접적으로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를 보고하고 있다. 한편 Feist, Bodne, Jacobs, Miles, 및 Tan(1995)은 신체적 건강, 일상생활에서의 싸움(hassels), 세계관, 건설적 사고 등과 주관적 안녕을 측정하여 전자의 여러 요인이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끼치며, 반대로 주관적 안녕이 이들 요인에도 영향을 끼침을 보고하고 있다. 즉 ‘양방향적인 인과성’ 모형으로 상향, 하향 이론을 통합하고 있다.

상향-하향 이론 모두 부분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으며, 어느 한 이론이 우월하다고는 볼 수 없다. 상향, 하향 요인과 같은 주관적 안녕복지를 결정하는 두 근원을 나누는 이유는, 어느 한 요인의

중요성을 주장하기보다는 두 이론이 여러 대안적인 가능성을 제기하며 새로운 연구를 주도한다는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공동활동과 주관적 안녕과의 관계를 살펴 보고자 할 때에도 상향, 하향 요인의 구분을 하여야만 한다. 공동생활과 활동의 질, 양적 측정을 주관적인 안녕복지로서의 삶의 질과 단순히 관련시켜서는 진정한 두 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특정한 성격(하향) 요인이, 공동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주관적 안녕복지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중요한 요인은 성격이 되고 공동활동 생활은 하나의 매개 변인으로의 역할밖에 하지 않는 것으로 될 수 있다.

주관적 안녕 판단의 인지적 과정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이론적 모형은 주관적 안녕 판단이 이루어지는 인지 과정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나의 삶은 이상적 삶에 가깝다”는 문장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7점 척도에서 평정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떤 인지 과정을 거쳐 특정한 점수를 선택하는 것일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적인 안녕 상태를 단순히 읽어내어 보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판단 과정에 관한 많은 사회인지 연구가 보여주듯이(예, Higgins와 King, 1981) 사람들은 판단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탐색, 인출하는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의 주관적인 확신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만큼의 정보만을 이용하여 판단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정보의 최신성과 빈도 등과 같은 인출 용이성에 의해 쉽게 영향받는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주관적 안녕 판단도 예외일 수 없으며, 응답자의 밀바탕이 되는 안정적인 특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일시적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Schwarz와 Strack(1991)은 주관적 안녕에 대한

판단이 일어나는 과정을 명세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주관적인 안녕에 관한 총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의 정서 상태에 관한 정보가 있으면, 이 정서나 기분 정보를 이용해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정서 상태에 관한 정보가 없거나, 구체적인 주관적 안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구체적인 정보를 기억에서 인출한 후,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통합하여 응답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응답의 상황이 공적, 사적이냐에 따라, 혹은 사회적인 고려를 해야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최종적인 편집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보고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즉 응답시의 정서 상태, 적절한 정보의 인출 여부, 비교의 기준, 보고하기 전의 수정 등과 같은 단계가 주관적 안녕 판단에 관여하는 것이다. 이들은 실험을 통해 이들 요인의 효과를 확인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만, 이 효과가 실험 상황이 아닌 실제의 조사 상황에서도 체계적으로 나타날 것인가는 알 수 없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인의 효과가 단순히 가감되며 체계적인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형은 ‘무엇이’ 주관적 안녕 판단에 영향을 끼치느냐의 문제와는 달리 ‘어떻게’ 판단이 일어나느냐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에 연구자들에게는 시사를 주는 바가 많다고 보여진다. 주관적 안녕 척도를 개발할 때 문항을 어떻게 구성하며, 개별 문항의 순서는 어떻게 배열해야 하고, 어떤 시간적 공간적 환경이 주어져야 하는가를 신중히 고려하도록 하는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²⁾

공동생활 및 활동과 주관적 안녕

주관적 안녕으로서의 삶의 질 지표가 한 국가나 사회 성원의 전체적인 만족도를 나타내 주는 총체

2) 본 연구에서도 여러 하위 척도의 순서를 변화시켜 질 문지를 구성한 후, 이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체계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적인 지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아울러 국가나 사회의 특정한 요인과 관련시켜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의 물리적 환경이나 공간을 관련시킬 수도 있고, 청소년과 같은 사회 집단과 관련시킬 수도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상위 주제인, 현대 사회에서 공동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공동생활을 하는 성원들에게 얼마만큼의 만족을 주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에서는 필수적으로 주관적 안녕으로서의 삶의 질을 측정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동생활에 관한 외현적인 지표만으로는 - 예로, 참여하는 공동활동의 종류나 빈도 등 - 공동활동과 생활이 주는 사회, 심리적인 효과를 알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특정한 공동활동이나 생활(예, 가정, 동호인 모임 등)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와 같은 여론 조사식의 질문만으로도 공동활동과 생활의 기저 요인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공동생활과 활동의 주관적 만족도를 포괄하는 주관적 안녕 척도를 개발하여 이를 공동생활과 활동의 실태와 함께 조사하는 것이 최선의 연구 전략이 될 것이다.

개별화, 원자화 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공동생활이 주는 만족감 혹은 불만족감의 기저 원인을 찾는 연구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많지 않은 형편이다. Quevillon과 Lee(1983)은 수용시설에서 생활하는 38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여가 주관적 안녕의 예측 요인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사회 활동의 빈도, 그 활동에서 느끼는 즐거움(pleasantness), 및 주관적인 삶에 대한 만족을 측정한 후 중다회귀 분석하였다. 사회 활동의 즐거움은 주관적 만족에 대한 신뢰로운 예언치가 되지만, 활동의 빈도는 관련이 없다는 결과를 얻어, 사회 활동의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보고하고 있다. Okun, Stock, Haring, 및 Witter(1984)도 사회적 활동이 주관적

안녕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이 경향은 노인들에게 현저함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활동의 종류에 따라 주관적 안녕과 관계가 없다는 보고도 있기에(Diener, 1984 참조) 그 관련성을 확인하기는 힘들다.

사회적인 관여 혹은 활동과 주관적인 안녕과의 관계를 가장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Cooper, Okamura, 및 Gurke(1992)이다. 이들은 만족감(행복감)과 사회 활동의 관계를 여러 중개 변인의 작용을 염두에 두면서 연구하였다. 즉 1)외향성, 2) 사회적 용인에 대한 욕구(need for social approval) 3)네 가지 유형의 사회적 활동(부모, 친척, 친구, 집단)의 빈도와 만족도를 측정하였고, 주관적 안녕의 지표로 삶에 대한 만족, 정서 경험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사회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주관적 안녕에 가장 강한 예언인이 되는 것으로 나왔으며, 성격 요인도 유의한 정적 관계로 나왔다. 그리고 사회 활동의 빈도에서는 집단을 통한 활동의 수가 주관적 안녕과 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나타냈다. 이 연구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제한은 있지만, 가장 명확히 사회 활동과 주관적 안녕이 관련됨을 보여주는 연구이다. 더구나 이 두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 매개 변인을 같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도 주고 있다.

사회 활동과 관련된 흥미로운 주제는 공동체 의식(sense of community)과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이다. 공동체 의식이란 Sarason(1974)이 제기한 개념으로, 그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 이 개념을 발전시켜 왔으며, 가장 포괄적인 이론으로 발전시킨 연구자는 McMillan과 Chavis(1986)이다. 이들은 공동체 의식을, 소속감, 영향, 욕구의 충족, 정서적 연결의 공유와 같은 네 가지 요소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특정한 참조 집단에 대한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속감을 느끼고, 그 집단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거나 반대로 영향을 받으며, 집단적인 능력이나 활동을 통

해 욕구를 채울 수 있다고 믿으며, 집단의 역사를 공유함에 따라 강한 정서적 유대와 관여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특정한 사회 활동 혹은 집단과의 강한 공동체 의식은, 앞에서 논의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주관적인 안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Davidson과 Cotter(1991)는 '시(市)'를 참조단위로 하여 공동체 의식과 주관적 안녕이 관련됨을 보고하고 있다. 이들은 1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의식 척도(Davidson과 Cotter, 1986)와 네가지의 주관적인 만족(전반적인 행복감, 타인에 비교한 삶에 대한 만족도, 여러 걱정의 빈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를 다룰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을 측정하여, 이 둘이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아직은 왜, 혹은 어떻게 공동체 의식이 주관적 안녕과 관련되는지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는 없으며, 가능한 여러 가능성을 추측하는 수밖에 없다. 공동체 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만족을 얻을만큼 적극적으로 특정한 사회 활동에 관여하고 이것이 주관적 만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특정한 성격 특성이나 인구학적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이 높아 주관적 안녕이 높을 수도 있다. 혹은 주관적 안녕과 공동체 의식이 직접적으로 관계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공동생활과 활동이 모두 특정한 참조 집단을 가정하는 것이기에, 그 집단에 대한 공동체 의식의 조사는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주관적 안녕 척도 개발을 위한 기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동 생활과 활동의 기저가 되는 사회-심리적인 요인을 찾기 위한 '주관적 안녕' 척도를 구성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하지만 이 목적에 적합한 척도 개발을 위한 제약은 없다. 즉 어떻게 주관적 안녕 척도를 만들

어야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알 수 있는 이론적 지침이나, 경험적 자료가 없는 형편이다. 그러기에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이론, 모형,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서, 우선 다음과 같은 척도 개발을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하위 척도들을 선택하였다.

첫째로, 최종적인 척도 개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 연구 결과를 포괄하고자 하였다. 즉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문항이나 척도를 가능한 많이 포함하여 척도를 구성하고, 실제의 조사와 분석을 통한 선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잠정적이며 통합적인 이론 틀을 구성하고 여기에 부합되는 하위 척도나 문항을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물론 이러한 모형과 틀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단지 연구의 방향성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보다 포괄적이고 타당한 모형은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잠정적인 통합 모형은 본 논문의 종합 논의 부분에서 제시하고 설명하도록 하겠다. 세 번째로, 우리의 생활 환경이나 전통에 맞는 척도를 만들기 위해, 이미 한국에서 실시된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포함시키고자 노력했으며 외국 문항의 단순한 번역은 지양하였다. 네번째, 공동 생활과 생활과 관련이 있으며 아울러 주관적 안녕과 관련이 있는 하위 척도를 포함시켰다. 이러한 네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구성한 척도의 종류는 나중에 나오는 연구 방법 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겠다.

방 법

조사대상자

아주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한 뒤 기록하여 회수하도록 하였다. 이때, 질문지를 2부 배부하여 한 부는 자신이 하고 다른 한 부는 30세 이상의 일반인에게 실시하도록 하였다. 배부한 질문지는 550

표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변수	빈도	%
연령	10대	83
	20대	111
	30대	58
	40대	46
	50대	25
성별	남자	193
	여자	130
교육수준	고졸 이하	100
	대학 재학	160
	대졸 이상	63
	전체	323
		100.0

부였고 이 중에서 323부가 회수되었다. 표 1은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60.1%, 30대 이상이 39.9%였고, 성별로는 남자가 59.8%로 여자보다 약간 많았다

질문지

삶에 대한 만족 척도: 전반적인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모두 두 가지였다. 첫째,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가 개발한 삶에 대한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이하 SWLS로 표기)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응답자가 자기 나름의 기준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는 도구로서(Pavot와 Diener, 1993), 7점척도 문항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개발 이래 주관적 안녕감을 재는 척도로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척도 중의 하나이며, 척도의 신뢰도나 타당도 같은 중요한 심리측정학적 특성에서 매우 만족할 만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표본을 포함하는 연구에 이용된 적은 있지만, 아직 우리말로 번안된 척도의 심리측정학적 특성은 알려진 바 없다.

삶의 질 일반 검사: 둘째는 조명한(1993)이 개발한 삶의 질 일반검사이다. 이 척도는 “직업이나

자녀교육과 같은 생활의 특정 관심사항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일반에 관해 얼마만큼 만족하느냐를 측정하기 위해(조명한, 1993, p.10)” 개발한 것이다. 이 검사는 7점척도 문항 8개로 구성된 것으로서, 문항작성 형식을 보면 문항자체에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예컨대, “...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지금까지 이 척도를 이용한 연구가 몇 있으나 아직 신뢰도나 타당도 측면에서 충분한 자료를 축적하지 못하고 있다.

기분 평정 척도: 주관적 안녕감의 중요 요소로 많은 연구들이 정서 경험의 빈도나 강도를 들고 있으며 여러 다양한 측정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척도를 번역하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연구되어 온 척도의 하나인 이홍철(1993)의 기분평정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7점척도로 평정하는 15개의 형용사로 구성된 것이다. 이 척도는 각기 행복, 우울, 분노 차원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신뢰도도 각기 .82를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 이 척도를 이용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태이다.

영역별 만족도: 영역별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들의 판단과 차경호(1995)의 연구를 참고해서 7점척도 문항 26개를 작성하였다. 문항은 영역 범위를 개인, 가족, 사회생활, 환경으로 대략 구분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선정하였다.

외향성 내향성 척도: 서론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많은 연구들이 주관적 안녕감이 개인의 성격 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개인적인 통제감, 외향성, 낙관성의 네가지가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yers와 Diener, 1985). 이중 전자의 두 성격 변인보다는 - 비록 경험적인 근거는 없지만 - 외향성과 낙관성이 문화적인 차이를 더 잘 나타낼 것이라는 판단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향성-내향성 척도, 낙

관주의-비관주의 척도의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첫째로 외향성-내향성 척도는 아이젠크와 이현수(1985)의 성격차원 검사 중에서 외향성-내향성을 측정하는 20문항을 뽑아서 사용하였다.

낙관주의-비관주의 척도: 낙관적인 사람들이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유지한다는 결과(Scheier와 Carver, 1992, 1993)에 기초해, 낙관성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포함시켰다. 낙관주의-비관주의는 Scheier와 Carver(1985)의 삶의 지향성 척도(LOT: Life Orientation Test)를 번안해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삶의 지향성으로서 낙관주의와 비관주의 성향을 하나의 차원으로 간주하고 측정하는 척도이다. 4개의 가짜문항(filler items)을 포함해서 동의여부를 묻는 12개의 5점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에 포함된 다른 척도들과의 일관성을 고려해서 7점척도로 제시하였다.

집단주의-개인주의 척도: 주관적 안녕감의 국가, 문화간 비교 연구(Diener, Suh, Smith, 및 Shao, 1995; Suh와 Diener, 인쇄중) 결과를 보면, 집단주의적인 문화의 주관적 안녕감이 개인주의적인 문화보다 낮게 나온다. 더구나 집단-개인주의적인 성향은 공동생활이나 활동과도 밀접히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집단주의-개인주의 척도를 본 연구에 포함시켰으며, Triandis(1995)가 그간의 연구를 토대로 제안한 주관적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SINDCOL: Subjective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에서 9점척도 32문항을 뽑아 사용하였다. SINDCOL은 2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첫째 척도는 9점척도로 평정하는 32문항과 4지선다형 3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는 집단주의-개인주의 차원 외에 수평-수직 차원도 함께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고, 각기 4종류의 하위척도(즉,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제작되었다).

공동체 의식 척도: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

회 활동, 공동체 의식,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공동체 의식 척도를 포함시켰다. Davidson과 Cotter(1986)이 개발한 공동체 의식척도(SCS: Sense of Community Scale)를 번안해서 이용하였다. 원 척도는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일반성이 없는 2개 문항(문항1과 15)을 제외하고 4점짜리 15개 문항만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준거가 되는 집단은 광역시의 '구'와 '시, 군'로 정하였는데, 이유는 선거를 통해서 이 단위의 대표인 기초단체장을 선출한 경험이 있기에 사람들이 비교적 쉽게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리라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척도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바 없다.

결과 및 논의

척도특성 분석 1: 내적합치도와 문항분석

본 연구의 관심은 여러 하위 척도들이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나, 우선 신뢰도 계산과 요인분석을 통해 각 척도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SWLS: 표 2는 SWLS 각 문항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표를 보면, 이들 5개 문항은 문항-전체 상관의 최하 .62에서 최고 .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서 특별히 버릴 문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척도를 이용한 외국의 연구들에서 나타난 신뢰도계수(알파계수)는 최하 .79에서 최고 .89에 이른다는 것을 감안하면(Pavot와 Diener, 1993), 본 연구의 척도의 신뢰도는 .86정도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요인분석 결과, 첫 번째 요인의 고유근이 3.89로 매우 높고 그 외에는 고유근 1이상의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 5개 문항은 하나의 요인을 구성함을 보여주었다. 이 요인이 차지하는 설명량은 48.7%로 매우 높았다. 이런 결과는 외국의 연구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예컨대, Diener 등(1985)의 요

표 2. SWLS 문항분석 결과

문항 내용	문항-전체 상관계수	문항제거시 알파계수
1. 전체적으로 나의 삶은 나의 이상적 삶에 가깝다	.73	.81
2. 내 삶의 여러 조건들은 매우 좋다	.66	.82
3. 나는 지금의 내 삶에 만족한다	.71	.81
4. 지금까지 원하는 중요한 것을 대부분 이루어 왔다	.62	.83
5. 다시 산다해도, 지금의 내 삶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63	.83
사례수: 323명 α 계수: .8551		

주: 문항내용은 편의상 실제 문항을 요약적으로 적은 것임

표 3. 삶의 질 일반검사 문항분석

문항 내용	문항-전체 상관계수	문항제거시 알파계수
1. 인생목표나 이상에 비추어 어느 정도 만족?	.62	.82
2. 노력해온 것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에 비해 어느 정도 만족?	.55	.83
3. 친척이 이룬 것에 비해 어느 정도 만족?	.51	.83
4. 친구가 이룬 것에 비해 어느 정도 만족?	.67	.81
5. 같은 처지의 타인이 이룬 것에 비해 어느 정도 만족?	.63	.82
6. 과거 자신의 처지에 비해 이룬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60	.82
7. 능력과 장단점을 고려해서 기대하는 것에 비해 어느 정도 만족?	.58	.82
8. 지난 6개월 간 대체로 어느 정도 행복?	.48	.84
사례수: 321명 α 계수: .8470		

주: 문항내용은 편의상 실제 문항을 요약적으로 적은 것임

인분석 결과도 단일요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후의 연구들도 같았다(예컨대, Arrindell, Meeuwesen과 Hyuse, 1991). 따라서 후속 자료처리에서는 5개의 문항을 합산해서 평균한 값을 SWLS 점수로 삼았다. SWLS 점수는 최소 0점에서 최고 7점의 범위를 가지며, 4점이 중앙값이 된다.

삶의 질 일반검사: 표 3은 조명한(1993)의 삶의 질 일반검사 문항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문항-전체 상관계수도 특별히 낮은 것이 없고, 조명한(1993)에서는 신뢰도 계수를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본에 따른 비교는 어렵지만 본 연구의 표본에서는 알파계수가 .85로 나타나서 만족할만한 수준이다.

척도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유근이 1이상인 요인은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은 3.89의 고유근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서 전체변량의 48.7%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이런 요인구조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다르다. 예컨대, 조명한(1993)의 연구에서는

문항 1, 2, 6, 7이 '자기준거에 따르는 만족감'으로, 문항 3, 4, 5가 '타인준거기준에 따르는 만족감'으로, 그리고 문항 8이 '총체적인 행복감의 경험'으로 모두 3개의 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조명한, 김정오, 및 권석만(1995)에서는 6개 문항이 '준거기준에 따르는 만족감' 요인을 이루고 나머지 2개 문항이 '총체적 행복감' 요인을 이루는 2요인구조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두 연구의 대상이 서로 다르기에, 즉 전자의 연구는 80%이상이 25세 이상 성인, 후자는 모든 연구 대상이 24세 이하 청소년이었기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 결과와의 차이는 쉽게 설명할 수 없다. 이 척도가 측정하는 삶의 질에 대한 일반적 만족도의 요인구조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SWLS와 삶의 질 일반검사는 개념상으로 유사한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다. 가장 큰 유사성은

두 척도 모두 개인이 자신의 삶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라는 점이다. 그러나 SWLS가 외부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기준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는 도구(Pavot와 Diener, 1993, p.164-165)”인 것에 반해 삶의 질 일반척도는 이런 자기기준에 따르는 평가 외에 ‘준거기준에 따르는 만족감(조명한 등, 1995)’, 즉 현재의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과거의 자신을 준거로 하는 평가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두 척도의 문항을 한꺼번에 요인분석함으로써 이런 개념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표 4는 SWLS와 삶의 질 일반척도의 문항을 한꺼번에 요인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4의 결과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Diener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의 내부기준에 따른 삶에 대한 전반적 판단과 조명한(1993)이 말하는 ‘자기 준거에 따른 만족감’이 사실상 동일한 개념임을 보여주며, 또한 타인을 기준으로 한 전반적 판단은 자기 기준에 따른 전반적 판단과 구분될 수 있는 차원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직 타인

을 기준으로한 판단이라는 의미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결과들도 잘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주관적 안녕의 판단의 독립된 요인으로 설정하는 것은 개념적인 수준에서 무리가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단 연구에 이용한 문항들 중에서 삶의 질 일반척도의 문항 2, 3, 4, 5, 6을 타인을 준거로 한 만족감이라는 하나의 차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합산 평균하여 ‘타인기준 만족도(GSCB)’ 점수로 삼았다. 다른 하위 척도와의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인의 설정이 타당한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기분 평정척도: 긍정적 감정 척도의 신뢰도는 알파계수가 .86으로 만족할 만했고, 부정적 감정 척도의 신뢰도도 .84로 만족할 만한 것이었다. 각 하위요인 척도값은 해당문항의 평균을 계산해서 사용했다. 따라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모두 최소 1점에서 최고 7점의 범위를 가지며, 중앙값은 4점인 척도를 구성한다. 이흥철(1993)에 따르면, 기분평정척도는 3요인 구조를 갖는다. 요인분석한 결과 고유근이 1이상인 요인은 3개인 것으로

표 4. SWLS와 삶의 질 일반검사의 척도문항을 베리맥스 회전한 요인분석결과 (부하량 .30 이상만 표시했음)

문 항 번 호 (내용)	요인 1	요인 2	공동분산비(h2)
a1 (이상적 삶과 가까움)	.82		.70
a3 (지금의 삶에 만족함)	.78		.70
a2 (내 삶의 조건은 좋음)	.76		.60
b1 (이상에 비추어 만족)	.73	.34	.65
a5 (다시 살아도 안바꿈)	.72		.55
a4 (원하는 것 대개 이룸)	.65	.31	.52
b8 (지난 6개월간 행복)	.48	.34	.35
b4 (친구/동료의 성취에 비해)		.80	.70
b5 (같은 처지의 성취에 비해)		.77	.64
b3 (친지 등의 성취에 비해)		.73	.55
b6 (과거처지에 비해)	.30	.66	.52
b7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에 비해)	.45	.49	.44
b2 (자신의 노력과 당위에 비해)	.44	.48	.43
고유근	6.04	1.30	
설명량	46.50	10.00	56.40

주: 문항번호 a1-a5는 SWLS 문항이고, b1-b8은 삶의 질 일반검사 문항임

나타났다. 표 5는 15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이다. 이흥철이 '행복감'으로 명명한 첫 요인은 긍정적인 감정으로서 전체변량의 29.6%를 설명하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인은 각기 이흥철이 '우울'과 '분노'로 명명한 요인으로 각기 20.6%와 9.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울요인에 속하는 문항들 중 3개는 분노요인이데 .3이상의 부하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서 하나의 부정적 감정 요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영역별 만족도: 영역별 만족도는 모두 2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들은 각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개인영역(8문항), 가족영역(4문항), 사회영역(5문항), 환경영역(9문항)의 4영역으로 나누어 각기 하위척도를 구성하였다. 개인영역에 속하는 문항들은 신체적 건강, 재정상태, 사는 집, 장래전망, 자유로움, 개인적 성취, 종교, 즐기는 스포츠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들이며, 가족영역은 이성(또는 부부)관계, 자녀

(또는 부모 형제)관계 만족도를 묻는 문항이다. 사회영역은 이웃, 친구관계, 직장생활, 친목회나 동호회 활동, 근무지 환경에 대한 문항들이며, 환경영역은 교통수단과 교통환경, 매스컴의 내용, 물, 공기, 소음 등 생활환경, 물가, 치안, 문화적 환경, 공공시설의 안전 등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들이다. 단순히 각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한 것이기에 별도의 문항 분석없이, 각 영역에 속하는 문항들을 평균한 값을 그 영역에 대한 만족도 점수로 삼았다. 점수의 범위는 최소 1점에서 최고 7점이다.

외향성-내향성 척도: 방법 문단에서 설명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 이용한 외향성-내향성 척도는 이미 표준화가 이루어진 아이젠크-이현수(1985)의 성격차원 검사 중에서 해당하는 문항만을 뽑은 것이다. 문항 분석 결과 20개의 문항이 하나의 척도를 구성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뢰도 계수도 .85로 만족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20개

표 5. 기술평정척도 문항을 베리맥스 회전한 요인분석 결과 (부하량 .30 이상만 표시했음)

문항(내용)	요인 1	요인 2	요인 3	공통분산비(h ²)
C11(자신감)	.88			.774
C2 (기쁨)	.85			.730
C12(즐거움)	.88			.719
C6 (상쾌함)	.71			.534
C14(편안함)	.60			.382
C8 (슬픔)		.81		.695
C3 (긴장감)		.79		.655
C5 (불안함)		.74	.33	.679
C9 (외로움)		.74		.703
C10(우울함)		.63	.35	.610
C7 (속상함)		.58	.30	.441
C13(짜증남)			.75	.582
C4 (미움)			.70	.544
C15(화남)			.66	.463
C1 (괴로움)			.61	.397
고유근	4.44	3.10	1.38	
설명량	29.6	20.6	9.2	59.4

문항의 총점을 외향성-내향성 점수로 삼았다. 따라서 이 척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20점의 범위를 가지며, 척도값이 클수록 외향성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낙관주의-비관주의 척도: 척도를 구성하는 8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알파 계수가 .74인 것으로 나와 Scheier와 Carver(1985)의 연구 결과에서 보인 .76가 거의 같았다. 대부분의 문항들은 문항-척도 상관이 중간 범위에 들었으나 한 문항만이 유난히 낮은 상관을 보였다(문항 3번, '내게 뭔가 잘못될 수 있을 때 꼭 그렇게 된다'). 하지만 요인분석 결과 낙관-비관의 두 요인 구조로 나왔기에 8문항의 평균값을 척도 값으로 삼았다. 따라서 이 척도는 최소 1점에서 최고 7점의 범위를 가지며, 값이 클수록 낙관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공동체 의식 척도: Davidson과 Cotter(1986)은 공동체의식이 1 요인 구성체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먼저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15개 문항의 신뢰도는 .76이었다. 그러나 분석결과 문항 1,6,9,11,12는 문항-전체 상관이 너무 낮아서 제외하였다. 이들 문항을 제외한 결과 나머지 10개 문항의

신뢰도는 .77로 나타났다. 이들 10개 문항을 평균하여 공동체의식 점수로 삼았다. 공동체의식 점수는 최소1에서 최고4점에 이르는 척도를 구성한다.

집단-개인주의 척도: 원래 척도는 4개의 하위척도 점수를 산출하도록 제작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목적에 위해 집단주의 점수와 개인주의 점수만을 계산하였다. 각각 16문항으로 이루어진 집단주의 척도와 개인주의 척도의 신뢰도는 .81과 .72로 나타나서 개인주의 척도가 다소 낮았다. 각기 해당 문항을 평균하여 척도값으로 삼았다. 따라서 두 척도 모두 최소1에서 최고 9에 이르는 척도를 구성한다. 표 6은 분석에 사용한 여러 척도들을 요약한 것이다.

척도특성 분석 2: 척도간의 관계 분석

상관 분석: 표 7은 분석에 사용한 척도들의 상관관계수 행렬이다. 표 7에 제시된 상관관계수를 기초로, 공동 생활과 활동과 관련된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새로운 척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가장 현저한 특징의 하나는, 앞선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SWLS와 GSBC와 .60으로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인 것이다. SWLS가 자기 준거에 의

표 6. 연구에 사용한 척도 요약

척도 및 하위척도명	축약어	문항수	신뢰도	점수범위	비고
삶에 대한만족척도	SWLS	5	.86	1~7	
타인기준만족도	GSCB	5	.80	1~7	
기분평정척도 - 긍정	PMOOD	5	.86	1~7	
- 부정	NMOOD	10	.84	1~7	
영역만족도 - 개인	SECT1	8	-	1~7	
가족	SECT2	4	-	1~7	
사회	SECT3	5	-	1~7	
환경	SECT4	9	-	1~7	
외향성 - 내향성	EXTRO	20	.85	0~20	
낙관주의 - 비관주의	OPTI	8	.74	1~7	
공동체의식	SCS	10	.78	1~4	
집단주의	COLL	16	.72	1~9	
개인주의	INDI	16	.81	1~9	

한 평가인 반면, GSBC는 타인 준거에 따른 행복감이기에 이 두 척도를 적절히 결합하여 한 척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긍정적, 부정적 정서 경험의 빈도(PMOOD, NMOOD)도 SWLS, GSBC와 모두 의미있는 상관을 보여, 정서 경험이 주관적 안녕감의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SWLS, GSBC와 모두 의미있는 상관을 보인 척도는 성격 변인과 영역별 만족도였다. 주관적 안녕감의 두 구성 요소로 개인의 성향과 구체적 경험을 들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외향적 특성(EXTRO)과 낙관주의적 태도(OPTI)가 SWLS, GSBC와 .21이상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데 반해, 각 영역별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성격변인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나서 SWLS, GSBC와 .24이상의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이런 결과는 생활사건을 반영하는 영역만족도가 성격변인에 비해 주관적 안녕감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다른 연구결과(Heady와 Wearing, 1989)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서론에서 논의한 것처럼, 공동체 의식과 주관적 안녕감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고한 결과는 Davison과 Cotter(1986)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동

체 의식(SCS)이 SWLS, GSBC와 모두 상관이 낮아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단지 긍정적 정서 경험(PMOOD)과 .17 정도의 상관만을 보였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나오게 되었을까? 이러한 결과와 관련지어 몇가지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공동체 단위 혹은 기준거 집단 설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 단체'를 준거로 공동체적 동일시를 질문하였으나, 광역 단체는 공동체적 동일시를 경험하기에는 너무 큰 단위라고 여겨진다.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전국 조사에서도, '행정구역의 동이나 읍, 면'을 심리적으로 동일시하는 '동네'로 여긴다는 결과가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 준다. Davison과 Cotter(1986)는 준거 집단으로 '시'를 사용했으며, 세계의 '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세 개의 시는 인구가 각각, 18000, 30000, 18000명이었다. 그리고 이 세 시에서 공동체 의식과 주관적 안녕감의 상관계수가 각각 .37, .21, .33으로 나와, 보다 작은 단위의 시에서 상관계수가 높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광역 단체장을 선거로 뽑은 경험이 있기에 사람들이 이 단위를 하나의 공동체 단위로 여길 것이라는 연구자의 추측이 틀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공동 생활이

표 7. 연구에 사용한 척도들의 상관계수 행렬

	SWLS	GSBC	PMOOD	NMOOD	SECT1	SECT2	SECT3	SECT4	EXTRO	OPTI	SCS	COLL	INDI
SWLS	1.00	.60**	.50**	-.30**	.63**	.34**	.48**	.26**	.28**	.39**	.09	.14	.04
GSBC	.60**	1.00	.37**	-.17*	.48**	.26**	.35**	.24**	.20**	.27**	-.05	.14	.02
PMOOD	.50**	.37**	1.00	-.31**	.53**	.32**	.34**	.23**	.33**	.32**	.17*	.05	.04
NMOOD	-.30**	-.17*	-.31**	1.00	-.34**	-.32**	-.25**	-.08	-.14	-.31**	-.06	-.16*	.04
SECT1	.63**	.48**	.53**	-.34**	1.00	.45**	.58**	.43**	.32**	.46**	.17*	.20**	.14
SECT2	.34**	.26**	.32**	-.32**	.45**	1.00	.46**	.28**	.18*	.31**	.08	.29**	.19**
SECT3	.48**	.35**	.34**	-.25**	.58**	.46**	1.00	.42**	.34**	.31**	.20**	.28**	.22**
SECT4	.26**	.24**	.23**	-.08	.43**	.28**	.42**	1.00	.10	.13	.34**	.07	.04
EXTRO	.28**	.20**	.33**	-.14	.32**	.18*	.34**	.10	1.00	.33**	.10	.22**	.23**
OPTI	.39**	.27**	.32**	-.31**	.46**	.31**	.31**	.13	.33**	1.00	.15*	.16*	.22**
SCS	.09	-.05	.17*	-.06	.17*	.08	.20**	.34**	.10	.15*	1.00	.09	.08
COLL	.14	.14	.05	-.16*	.20**	.29**	.28**	.07	.22**	.16*	.09	1.00	.30**
INDI	.04	.02	.04	.04	.14	.19**	.22**	.04	.23**	.22**	.08	.30**	1.00

주: N = 299, 2-tailed Signif: * -.01 ** -.001

나 활동을 준거 단위로 혹은 동, 읍/면과 같은 작은 지역 단위를 대상으로 공동체 의식과 주관적 안녕감을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이 두 요인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고려할 것은, 공동체 의식과 일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로서의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련을 결정짓는 매개 변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동체 의식 문항(15문항 중 분석에 사용한 10 문항만 고려하여)에는, 지역(거주지, 집)에 대한 만족,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환경에 대한 만족, 소속감, 활동 기회의 제공,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 지역 사람들에 대한 호의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기에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직접적으로 주관적인 안녕감과 관련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회 활동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을 맺는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가 바로 SCS와 SECT 3(사회 활동 영역), SECT 4(환경 영역)의 유의한 상관이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공동체 의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러한 추측을 연구 가설로 설정하고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집단-개인주의 성향이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이 있을 것을 예측하였으며, 차경호(1995)의 연구에서는 집단주의, 특히 집단 의존성과 가족 통합성이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것으로 나왔고, 이와 달리 개인주의가 주관적 안녕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도 있으나(예컨대, Diener, Suh, Smith, 및 Shao, 1995), 흥미롭게도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요인이 의미있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와 차경호(1995)의 연구 모두 동일한 주관적 안녕감 척도와 집단-개인주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현재로서는 왜 이런 차이가 나왔는지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개인주의가 영역 만족도와는 어느 정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 이 요인도 공동체 의식과 마찬가지로 다른 매개 변인을 통해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의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영역만족도와 주관적 안녕: 삶의 각 영역에 대한 주관적 만족을 전반적인 만족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어떤 영역이 인생전반에 대한 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영역만족과 주관적 안녕 모두 개인의 인생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어서 방법론적인 유사성에 의한 변인이 개입할 수 있지만(이순목, 1995), 각 영역만족이 전반적 만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비교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표 8은 주관적 안녕감의 4개 지표 각각을 기준변인으로, 영역별 만족도를 예언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분석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결과를 보면, 주관적 안녕의 측정치들이 주로 개인영역의 만족을 반영하는 반면에, 더 넓은 사회영역이나 특히 환경영역에 대한 만족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네가지 주관적 안녕지표에 관해 개인영역 만족도가 큰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주관적 안녕이 개인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서 이들 측정문항들이 응답자로 하여금 비교적 개인자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좁은 영역의 사건들을 참조틀로 해서 반응하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GSBC와 PMOOD에 대해서는 개인영역 만족도만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표 8. 주관적 안녕에 대한 영역별 만족도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단계	R^2	2단계	R^2	3단계	R^2
SWLS	sect1	.41		sect3	.43		
GSBC	sect1	.24					
PMOOD	sect1	.27					
NMOOD	sect1	.12		sect2	.15	sect4	.16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PMOOD와 NMOOD에 대한 영역만족도의 관계성이 매우 달라서 두 감정 측정치가 비대칭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SWLS에 대해 사회영역 만족도가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사회영역이 이웃, 친구, 직장, 친목회나 동호회, 종교활동 등에 대한 만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SWLS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아울러 GSBC의 경우는 단지 개인영역 만족도만이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다는 결과도 흥미롭다. GSBC가 친척, 친구, 같은 처지의 타인, 노력과 장단점과 같은 기준에 근거한 만족의 정도이기에, 서론에서 언급한 주관적 안녕의 인지적 판단 과정 모형에 따르면, 이 기준들이 판단자 자신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인출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의 추측을 하게 한다. 반면 SWLS는 GSBC보다 더욱 광범위한 관련 정보를 인출하여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주관적 안녕감의 구성요소: 서론에서 주관적 안녕의 구성 요소를 1)행복감의 누적으로, 즉 경험이나 상태의 합으로 파악하거나 2)한 개인의 총체적인 성향 혹은 성격 특성으로 나누는 상향(bottom-up)이론과 하향(top-down) 이론을 논의한 바 있다. SWLS, GSBC, PMOOD, NMOOD를 주관적 안녕감의 네가지 종속 지표로 간주하고, 하향 구성 요소인 영역별 만족도와 상향 요소인 외향성과 낙관

주의를 원인변수로 보는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는 주관적 안녕감의 각 지표를 영역별 만족도와 성격변인들을 예언변수로 해서 중다회귀분석한 결과이다. 이 결과를 보면, 영역별 만족도와 외향성, 낙관주의라는 성격변수를 통해 각각의 주관적 안녕감 지표를 유의미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SWLS의 경우, 개인영역과 사회영역의 만족도, 낙관주의가 유의미한 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SBC의 경우는 개인영역만이 유의미한 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감정의 경우는 개인영역 만족도와 외향성, 낙관주의가 유의미한 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감정의 경우는 개인영역과 가족영역의 만족도와 낙관주의가 유의미한 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앞선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4가지 주관적 안녕감 지표가 조금씩 다른 측면을 측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관적 안녕의 구성요소가 경험의 누적과 개인의 성향을 통해 결정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결과만으로는 성격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상향이론의 주장을 확신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에 제시한 회귀 분석은 모든 변수들을 예언변수로 포함시킨 포화모형(full model)이다. 먼저, 이 모형을 이용해서 유의미한 계수를 갖는 변수들만으로 구성된 축소모형(reduced model)을 구성하

표 9. 네가지 주관적 안녕감의 지표에 따른 중다회귀분석 결과.

기준변인	예언변인						R ²	F값
	SECT1	SECT2	SECT3	SECT4	EXTRO	OPT1		
SWLS	.49**	.03	.14*	.03	.03	.11*	.44	39.43**
GSBC	.38**	.02	.10	.01	.03	.06	.25	17.24**
PMOOD	.38**	.06	.00	.05	.17**	.07	.30	22.01**
NMOOD	-.22**	-.17**	-.05	-.08	.02	-.16**	.18	11.25**

* p < .05 ** p < .01

고 둘을 비교함으로써, 모형에서 유의미한 계수를 갖지 않는 변수들을 제거해도 좋은지를 확인할 수 있다(Dillon과 Goldstein, 1984). 만일 포화모형과 축소모형의 R^2 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면, 이는 축소모형만으로 충분히 포화모형만큼 기준변인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포화모형의 변인들 중 축소모형에 속하지 않은 변수들의 베타값이 0이라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 축소모형을 다시 포화모형으로 간주하고, 이 모형에 들어갈 성격변수를 제외한 축소모형을 구성해서 둘을 비교함으로써 성격변수의 독자적 영향력 여부를 검증하고자 했다.

SWLS에 대한 영향변수들: 포화모형의 R^2 는 .4376이고, 계수가 유의한 SECT1, SECT3, OPTI만을 이용한 축소 모형은 .4354로 이들 두 R^2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SECT2, SECT3, EXTRO의 계수가 0이라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성격변수인 OPTI의 고유한 설명력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SECT1과 SECT3만으로 예언하는 축소 모형을 검증한 결과 R^2 는 .4236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F(1, 307) = 6.50, p < .05$). 이 결과는 SWLS에는 영역만족도로서 개인 영역과 사회영역에 대한 만족도 외에 성격변수인 낙관주의가 독자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GSBC에 대한 영향변수들: 포화모형의 R^2 는 .2539이고, 계수가 유의한 변수는 SECT1 하나 뿐이었다. SECT1만을 이용한 축소모형의 R^2 는 .2401로 두 R^2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더 이상의 축소모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GSBC에 대해서는 개인영역 만족도만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PMOOD에 대한 영향변수들: 포화모형의 R^2 는 .3028이고, 계수가 유의한 SECT1과 EXTRO만을 이용한 축소모형은 .2941로 이들 두 R^2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SECT2, SECT3, SECT4,

OPTI의 계수가 0이라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성격변수인 EXTRO의 고유한 설명력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SECT1만으로 예언하는 축소모형을 검증한 결과 R^2 는 .2629로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F(1, 308) = 13.66, p < .05$). 이 결과는 PMOOD에는 영역만족도로서 개인영역에 대한 만족도 외에 성격변수인 외향성이 독자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NMOOD에 대한 영향변수들: 포화모형의 R^2 는 .1818이고, 계수가 유의한 SECT1, SECT2, OPTI만을 이용한 축소모형은 .1552로 이들 두 R^2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SECT3, SECT4, EXTRO의 계수가 0이라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성격변수인 OPTI의 고유한 설명력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SECT1, SECT2만으로 예언하는 축소모형을 검증한 결과 R^2 는 .1549로 나타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OPTI가 독자적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공동체 의식, 영역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앞서 논의했던 것처럼 공동체 의식은 SWLS, GSBC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긍정적 감정(PMOOD)과는 .17의 유의미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는 준거 집단을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이런 결과가 나왔으나, 보다 작은 지역 공동체나 특정한 공동 활동 집단을 준거 집단으로 설정하면 두 요인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추후 연구의 몫이다.

앞에서 대안적인 가능성으로 논의한 것은 두 변인의 관계가 다른 매개변인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즉, 공동체 의식과 주관적 안녕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들을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변인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Okun, Stock, Haring과 Witter(1984)가 사회활동과 SWB의 상관을 연구한 107개 연구결과를 메타분석한 결과 평

균상관은 대략 .15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이나 성별, 인종과 같은 변인들이 조절변수로 작용하며, 사회활동의 유형이나 친구관계 등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밝혔다. 또한, 공동체의식과 주관적 안녕은 모두 공동체에 대한 평가 즉 공동체 만족도와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으며(Campbell, Converse, & Rogers, 1976; Glynn, 1981), Diener, Larsen과 Emmonsons(1984)는 사회활동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는 사람의 사회적 접촉욕구에 의해 조절되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 욕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사회활동과 주관적 안녕의 상관이 크다고 보았다.

이런 결과들을 공동체의식과 관련해서 해석하면, 공동체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공동체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의식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공동생활에 더 많이 참여하는 사람들 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의식은 자신의 공동체에 대한 평가와 상호작용해서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즉, 공동체 의식이 높고, 자신의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주관적 안녕이 높을 수 있지만, 공동체의식이 높으면서 자신의 공동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주관적 안녕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영역만족 중 개인영역과 가족영역을 제외한 사회와 환경영역은 모두 개인의 공동체에 대한 평가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와 환경영역을 묶어서 공동체에 대한 평가로 간주하고 이것이 공동체의식과 상호작용하는가를 검증하고자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척도들과 공동생활 및 활동의 만족도와 관련된 척도 등 모두 여덟가지를 사용하여, 척도

의 신뢰도 및 척도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 대상의 동질성이나 대표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나, 여러 척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척도들의 상호 관련성에 관한 몇가지 흥미로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문제점은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몇가지 주요 결과와 앞으로 공동생활 및 활동과 관련하여 주관적 안녕감 척도를 구성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점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SWLS는 신뢰도가 높으며, 여러 다른 측정과 관련되어 있어 가장 포괄적인 주관적 안녕감 척도로 쓰일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단지 이 척도는 주관적인 기준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판단이기에 다른 척도(예를 들면, 영역별 만족도)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조명한 등(1993)에서 선택한 ‘타인기준에 의한 만족도(GSCB)’는 SWLS와는 다른 측면을 측정하리라 생각했으나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SWLS보다 오히려 더 구체적인 정보 인출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주관적 안녕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3. 기분 평정 척도의 긍정적 감정(PMOOD)과 부정적 감정(NMOOD) 빈도는 일반적인 주관적 안녕감 척도를 대체 혹은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다른 요인과의 관련성(성격이나 영역 만족도)에 있어 SWLS와는 차이를 보였기에 이 두 척도를 모두 사용하여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4. 개인, 가족, 사회, 환경의 네 영역에 만족도 중, 주관적 안녕감과 가장 관련이 높은 영역은 개인이었다. 여러 부분 혹은 영역별 만족도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개별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개별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다.

5.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요인으로 선택한 외향성-내향성 척도는, 회귀분석결과 SWLS, GSBC와 같은 주관적 안녕 평정에 독립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단지 PMOOD와 유의한 관련을 보인 것으로 나왔다.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것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이 전체 검사에서 일부분만을 선택했기에 나온 것일 수 있기에,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6. 또 다른 성격 요인으로 선택한 낙관-비관주의는 기존 연구 결과와 같이 SWLS와 NMOOD에서 독자적인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 척도는 문항의 수가 적어 주관적 안녕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하향 요인의 하나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 여겨지나, 한두 문항은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므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7. 공동체 의식과 주관적 안녕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한 공동생활 및 활동에 적절한 문항을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8. 흥미롭게도 집단-개인주의는 주관적 안녕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매개 변인을 설정해야 하는지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기에 이론적인 정교화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신도철(1981). 한국인의 삶의 질 대연구. 정경문화.
아이젠크 · 이현수(1985). 성격차원검사 요강. 서울: 중앙적성 출판사.
이순목(1995). 직업생활의 질과 인생의 질. 삶의

질의 심리학, 한국심리학회 1995년 춘계심포지움 논문집, 79-112.

이흥철(1993). 정서상태가 기억수행 및 주의편향에 미치는 효과. 미발표 박사학위 청구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조명환(1993). 정보화 사회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92통신학술연구과제 연구보고서
조명환 · 김정오 · 권석만(1995).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 정책연구, 7, 61-94.
차경호(1995). 한국, 일본 및 미국 대학생들의 삶의 질 비교.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움 논문집, 115-143.
Andrew, F. M., & Withey, S. B.(1974). *American'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Press.
Arrindell, W. A., Meeuwesen, L., & Huys F. J. (1991).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SLMS) Psychometric properties nonpsy-chiatric medical out-patients samp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117-123.
Brief, A. P., Butcher, A. H., George, J. M., & Link, K. E.(1993). Integrating bottom-up and top-down theories of subjective well-being: The case of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646-653.
Campbell, A., Converse, P. E., & Ro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Cooper, H, Okamura, L., & Gurke, V.(1992). Social activity and subjective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 573-583.
Costa, P., & McCrae, R. R.(1980). Influence of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on subjective well-being: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668-678.

- Davidson, W. B., & Cotter, P. R.(1986). Measurement of sense of community with the sphere of cit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6, 608-619.
- Davidson, W. B., & Cotter, P. R.(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e of community and subjective well-being: A First look.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9, 246-253.
- Diener, E. & Diener, M.(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53-663.
-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ener, E., Larsen, R. J., & Emmons, R. A.(1984). Person situation interactions: Choice of situation and congruence response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580-592.
- Diener, E., Suh, E., M., Smith, H., & Shao, L. (1995). National differences in reported subjective well-being: Why do they occur? *Social Indicators Research*, 34, 7-32.
- Dillon, W. R., & Goldsmith, M.(1984). *Multivariate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New York: John Wiley & Sons.
- Feist, G. J., Bodne, T. E., Jacobs, J. F., Miles, M. & Tan, V.(1995). Integrating top-down and bottom-up structural modes of subjective well-being: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35-150.
- Glynn, T.(1981).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Measurement and application. *Human Relations*, 34, 789-818.
- Headey, B. & Wearing, A.(1989). Personality, life ev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Toward a dynamic equilibrium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731-739.
- Higgins, E. T., & King, G.(1981). Accessibility of social constructs: Information processing consequence of individual and contextual variability. In N. Cantor and J. F. Kihlstrom(Eds.), *Personality, Cognition, and Social interaction*. Hillsdale NJ: Erlbaum.
- McMillan, D. W., & Chavis, D. M.(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6-23.
- Myers, D. G., & Diener, E.(198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95, 6, 10-19.
- Okun, M. A., Stock, W. A., Haring, M. J., & Witter, R. A.(1984). Health and subjective well-being: A Meta-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9, 111-131.
- Pavot, W., & Diener, E.(1993).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 164-172.
- Quevillon, R. P., & Lee, H.(1983). Social involvement as a predictor of subjective well-being among the rural institutional aged.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Geriatrics*, 1, 13-19.
- Sarason, S. B.(1974). *Th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Perspectives for community psy-*

- chology. San Francisco: Jossey-Bass.
- Scheier, M. F., & Carver C. S.(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 219-247.
- Scheier, M. F., & Carver C. S.(1992). Effects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updat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 201-228.
- Scheier, M. F., & Carver C. S.(1993). On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The benefits of being optimistic.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 26-30.
- Schwarz, N., & Strack, F.(1991). Evaluating one's life: A judgment model of subjective well-being. In F. Strack, M. Argyle, & N. Schwarz (Eds.), *Subjective Well-being: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New York: Pergamon Press.
- Suh, E., & Diener, E.(in press). Subjective well-being: Issues for cross-cultural research.
- Triandis, H. C.(1996). *Individualism & Collectivism*. San Francisco: Westview Press.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and Social Activity

Wan-Suk Gim and Youngjin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construct a subjective well-being scale that can measure subjective satisfaction of social(or group) activity. The 323 subjects completed measures including 1)Satisfaction with Life Scale(SWLS), 2)General Test of Life Quality(GTLQ), 3)Mood Evaluation Scale(MES), 4)Introvert- Extrovert Scale(IES), 5)Life orientation Scale(LOT), 6)Subjective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SINDCOL), 7)Sense of Community Scale(SCS), and 8)items about 26 life situations which were categorized into four domains(i.e., personal, family, social, environmental). Inter-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 anlysis were perform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8 measures. Results showed that SWLS was most reliable and significantly related with other measures. The sub-scale of the MES(e.g., positive mood and negative mood) was also reliable and could be as a substitute measure of SWLS. The LOT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the SWLS, GTLQ, and MES. In addition, personal domain of life satisfaction was highly correl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However, the IES, SINDCOL, and SCS were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subjective well-being. Several criteria in constructing a subjective well-being scale were discussed.